

전북출신 인사, 이재명 정부 입각 촉각 곤두

개각 임박 전북 출신 중용 관심
안규백 국방·정동영 통일
김윤덕 문화부장관 거론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에 입각하게 될 전북 출신 인사는 누구이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고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으나, 대북 및 외교안보 등 특수 분야의 경우 이미 장관 후보자 등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전북 출신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는 통일부장관에 정동영 의원, 국방부장관에 안규백 의원이 있다. 또 문화관광부장관에는 김윤덕 사무총장 기용설도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의 통일부장관 지명 배경엔 전 정부의 대북 강경 책으로 남북간의 소통까지 완전히 단절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 통일부장관으로 대북 관계를 원만히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정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의장으로 활동할 때 당시 사무차장인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와 같이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과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했었다.

이 대통령도 ‘정동영-이종석’의 대북 외교라인에 대해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 의원의 통일부 장관 임명설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안 의원의 국방부장관 기용설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민간출신의 국방장관’의 필요성을 밝힌바 있다. 정부 수립 이후 이날까지 국방부 장관은 모두 군출신이 많아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파격적인 인사이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이 모두 군출신 출신 국방장관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민간 출신의 국방부 장관 기용은 국가가 아닌 사람에게 충성하는 군 문화를 개선하고 혁신할 인사로 평가된다.

안 의원은 조선 때부터 이날 (5선) 현재까지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국방위 간사 및 국방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온 민간

출신 국방분야 최 전문가이다.

이밖에 김 의원이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배경은 김 의원이 이재명 시대를 출범시킨 민주당의 사무총장으로 오랜기간 헌신해온 점과 전북도내에서 최초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점이다.

인사는 대통령실의 최종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의 핵심 중의 핵심인 민정수석에 전북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했다는 점에서 전북 인사의 추가적인 입각은

기대할 만한 실정이다.

물론 오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관리 에 이어 차명 대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등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전북 인사들이 대거 이재명 정부에서 기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만간 출범할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상병특검’ 등 3대 특검의 후보군에는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전북출신)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김양수 전 부산고검 차장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김영목기자



‘햇보리 수확 한창’ 농촌들별

절기상 망종(6월5일)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여름이 도래하자 농촌의 들녘에서는 본격적인 햇보리 수확이 한창이다. 2024년 기준 전북의 보리 생산량은 약 34,000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47.9%를 차지할 정도로 주산지다. 보리는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 당지수는 낮고 특히 β-글루칸이

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콜레스테롤을 저하, 혈당조절, 장 건강 개선에 효과적인 작물이다.

<관련기사 4면, 사진=전북자치도 농업기술원>

아프리카 영화, 영화의 도시 전주에서 관객 만난다

‘제7회 아프리카영화제’ 개막
아프리카 15개국 15편 상영
서울·부산·전주 릴레이 개최

아프리카 15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 15편이 대한민국 영화의 도시 전주에서 상영된다.

한국과 아프리카간 문화교류의 장인 ‘2025 제7회 아프리카영화제’가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전주디지털독립영

화관에서 펼쳐진다.

전주시는 12일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주한 튀니지 대사과 한·아프리카재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아프리카영화제’ 전주 개막식을 가졌다.

한·아프리카재단과 부산 영화의전당,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가 공동 주최하고, 외교부와 주한아프리카외교단에서 후원하는 ‘2025 제7회 아프리카영화제’

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서울과 부산, 전주 등 국내 3개 도시에서 릴레이 개최된다. 이날 전주에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15일까지 4일간 선보인다.

이번 영화제에는 평소 자주 볼 수 없었던 가나와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수단, 케냐, 튀니지 등 아프리카 15개국의 우수한 작품 15편이 상영된다.

영화제 개막작은 튀니지의 로트리 아슈르(Lotfi Achour) 감독이 지난해 제작한 ‘붉은 아이들의 길(Red Path)’이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독립영화, 대안영화의 성지 전주에서 아프리카영화제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아프리카영화제가 전주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문화교류의 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현대차 전주공장 ESG 실천 앞장

덕유산 멸종위기종 보호
3200만원 기금 전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장현구)은 덕유산국립공원 내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보전사업을 위해 사회공헌기금 3,200만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지방환경청,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굿네이버스 전북특별자치도 자립지원담당기관 등이 함께하고 있다.

이번 기금은 덕유산국립공원 내에 자생하고 있는 멸종위기야생생물 I 급 서식지에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 전시회 운영 지원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또 덕유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멸종위기야생생물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멸종위기야생생물 I 급인 광릉요강꽃과 반달가슴곰을 모델로 가방걸이 기념품을 제작해 나눠줄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가 중점을 두고 있는 ESG 환경경영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멸종위기야생생물 보전사업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서식지 파괴 등으로 인해 갈수록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야생생물들 중 광릉요강꽃 등 덕유산국립공원 내 멸종위기야생생물을 잘 보전해 나가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3년째 연속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관계자는 “인류공통의 당면과제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는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버스와 수소전기트럭을 개발해 생산에 나서는 등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 오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전북도, 바이오산업 세계화 시동

이탈리아포르투갈 석학 전북 방문 기술협력 논의

전북자치도가 12일 세계적 바이오 연구기관 석학들과 함께 글로벌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첨단 바이오산업의 세계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번 협력은 이탈리아 트렌토대학교(University of Trento)와 포르투갈 미뉴대학교(University of Minho)를 대표하는 석학들이 전북을 방문하며 진행됐다.

전북도에서는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대학교가 함께 참여했다.

이날 전북을 찾은 클라우디오 밀리아레시(Claudio Migliaresi) 교수는 트렌토대학교 BIOtech 연구센터의 설립자이자 생체재료·조직공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루이 L. 레이스(Rui L. Reis) 교수는 포르투갈 미뉴대학교의 I3B's 연구그룹을 이끄는 재생의학 분야 석학으로 생분해성·생체모사 기술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이들은 전북자치도와와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북바이오산업진흥원 시설 투어, 전북대 고분자소재융합연구센터 방문 등을 통해 공동연구와 기술이전, 인적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4월 체결된 업무협약의 실질적 실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EU Horizon Europe와 같은 국제 공동연구과제에 전북의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차세대 바이오소재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이 본격화되며, 전북 바이오산업 해외 진출이 현실화되고 있다.

당시 도와 트렌토대학교 BIOtech 연구센터, 미뉴대학교 I3B's 연구그룹,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는 △첨단 바이오소재 기반 공동연구 추진 △국제 R&D 과제 연계 △연구인력 교류 및 기술이전 등에 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연구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고, 상호 기술역량을 공유하며 연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현재 I3B's 연구그룹, 전북대학교,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함께 '첨단바이오 육성 글로벌 협력 Pre-R&D 과제'를 공동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제는 이달부터 8개월간 연골재생용 바이오소재 기술개발 및 국제 협력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전북자치도는 트렌토대 BIOtech 센터와 미뉴대 3B's 그룹의 연구 노하우와 전북의 바이오산업 인프라를 융합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소재 기술을 상용화 단계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기술협력 수준을 넘어, 글로벌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중장기 산업화로 이어지는 실질적 연계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유럽 석학들의 방문은 전북 바이오산업이 본격적으로 세계적 연구 생태계에 진입하는 신호탄"이라며 "도는 앞으로도 국내외 선도 연구기관과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첨단 바이오소재를 중심으로 한 전북형 미래산업 기반을 튼튼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새 정부에 바란다

조지훈 “과감한 지원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살리자”

골목상권 부활 최우선

길었던 '마음의 겨울'이 끝났다. 폭정의 끝을 보여준 광기 어린 비상계엄도 대한국민이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허물지 못했다.

계엄군의 장갑차를 막아선 국민의 저항과 분노는 탄핵과 파면으로 맺어졌다. 제2의 광주는 없었다. 한강 작가의 소회대로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전북의 선택 역시 이재명이었다.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간절한 바람이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돌아본 전주의 골목골목은 한낮의 더위가 무색하게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텅 빈 상가에 담긴 것은 소상공인의 눈물이었고 썰렁한 거리는 자영업자의 한숨으로 가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회복과 성장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로 그 시작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것이다.



조지훈 부의장

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 길을 가장 잘 이해하고 선구적으로 실천한 정치인이다. 지역 화폐로 골목을 살린 경험과 성과가 '변방'의 이재명을 '중심'으로 밀어 올렸다.

골목골목이 최악의 위기를 맞은 이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다가온다. 성난 담긴 것은 소상공인의 눈물이었고 썰렁한 거리는 자영업자의 한숨으로 가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민하고 분명하게 응답했다. 6월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긴급 추경과 “취약 계층과 소상공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과 경기 침체로 신음하는 골목상권의 부활에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이 달려있

인 지원을 우선”할 것을 지시했다. 문제는 속도와 규모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코로나 당시 입었던 막대한 피해도 그대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추경 한 번으로 모두 해결할 수 없지만, 그래서 더욱 다층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직접적인 지원금 외에도 코로나 채무 탕감과 대출·지원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지금, 여기에 쏟아부어야 한다.

내란 계엄의 밤부터 6·3 대선까지 달려온 6개월을 기억한다. 현란한 응원봉과 재기발랄한 깃발은 신선한 감동이었고 은박 담요를 뒤집어쓴 채 혹한의 거리를 밝힌 '키세스 시위대'는 K-민주주의의 새로운 페이지를 예고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재명 대통령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진짜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또 믿어 의심치 않는다.

조지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더민주전북혁신회의 공동대표

윤수봉 도의원, 완주·전주 통합 강력 반대

“일방적 통합 추진 명분·실익 없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12일 제41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지사가 추진 중인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수봉 의원은 먼저 세 차례 관 주도



윤수봉 도의원

윤 의원은 “임의적이고 한시적인 재정지원이 장기적으로 재정 축소로 이

통합 시도로 인해 입은 완주군민의 대립과 반박, 상처들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과 사과 의사를 물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임의적이고 한시적인 재정지원이 장기적으로 재정 축소로 이

어질 수 있다”며 완주·전주 통합 관련 재정특례에 대해 조목조목 묻고 반박했다.

또 윤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모 여론기관의 여론조사가 전북자치도의 의뢰로 제공된 것과 그 시기의 부적절성에 대해 질문하고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김영태 기자

김이재 도의원,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민원 대응 ‘문제’

담당자 철저한 조사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은 12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민원 대응 미흡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흥원이 도내 농생명 및 식품 산업 지원의 핵심 기관임을 강조하며, 최근 진흥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한



김이재 도의원

에게 중재를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이를 회피했고 결국 기업은 지원사업을 마치

기업이 디자인 제작 업체와의 갈등으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례를 언급했다.

갈등 과정에서 해당 기업과 업체가 진흥원 담당자에게 중재를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이를 회피했고 결국 기업은 지원사업을 마치

지 못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진흥원 내 담당자가 박람회 부스와 관련해 비정상적인 금전 거래를 유도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히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담당자가 박람회 부스 사용료를 특정 제3의 업체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형 우리아이 발달증진 프로젝트’ 본격화

13개 전문기관 연계 발달지연 아동 72명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 위한 '전북형 우리아이 발달증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우리아이 프로젝트는 영상 콘텐츠 과다 노출 등으로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부모·교사·전문기관이 함께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다.

영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아동에게 1:1 맞춤형 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모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교육도 병행해 진행된다.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출생한 도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으로, 올해 총 72명을 선정한다. 상반기에는 50명, 하반기에는 22명을 모집하며, 현재까지 23명이 선정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선정 아동에게는 10회의 개별 맞춤 서비스와 1회의 부모상담이 제공되며,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뒤, 해당 어린이집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전북자치도는 이 사업을 위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고창군, 부안군 등 도내 13개 발달지원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해당 기관은 선정 아동에게 발달 영역

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며, 군 지역이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는 상담 인력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발달지원 종료 이후 부모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사후검사를 실시해 발달변화를 정밀히 파악하고, 필요시 후속지원도 연계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일회성 개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발달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박장석 전북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영유아 시기는 인간 발달의 골든 타임으로, 이 시기의 적절한 개입은 아이의 미래를 크게 바꿀 수 있다”며 “전북자치도는 도내 모든 아이들이 발달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보다 정밀하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정성호 의원 “조국 사면필요…본인·가족 처벌 불균형”

‘이준석 제명’ 사실상 반대

이재명 대통령의 최 측근그룹인 진명계의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조국 전 조국당 대표의 사면의 필요성을 밝혀 조국 전 조국당 대표에 대한 사면이 실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함께 정 의원은 제기되고 있는 이준석 개혁당대표의 제명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히, 국회 청원에도 불구하고 제명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혁신당이 전날 방문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조국 전 대표나 배우자, 그의 아들

딸이 받았던 형벌을 보면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게 하나의 사건인데 그 배우자가 받았던 형, 조국 전 대표가 받았던 형,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고 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한 것이다.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런 측면에서, 형벌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준석 개혁당 의원의 제명 청원이 50만명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 “국민이 선출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제명은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과거엔 박정희 대통령 때 김영삼

의원의 제명밖에 없었다. 그런 면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건 신중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사실상 제명을 반대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정당해산'에 대해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정당해산을) 제소한다”며 “과연 국민의힘의 설립목적이나 활동이 그렇게까지 보기는 힘든 것 아니겠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정 의원은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정당해산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그런 저는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게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하는지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김영목 기자



농진청, 홍잠 암세포 제거·면역 증진 입증

‘진 누에’ 홍잠 추출물 연구 대식세포·자연살해세포 증식 혈액암·췌장암 등 세포 제거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한림대학교(고영호 교수 연구팀)는 백옥잠으로 만든 홍잠이 선천 면역 세포 증식을 촉진해 암세포를 억제하고 바이러스 등 병원체 제거에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밝혔다.

홍잠(弘蠶)은 누에가 완전히 자라 몸속에 견사 단백질이 가득 찬 익은누에를 수증기로 쪄 동결건조 후 가공한 것

으로 아미노산, 오메가3, 지방산, 폴리페놀 등 다양한 유용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연구진은 홍잠과 초임계 추출기로 추출한 홍잠 추출물 모두 대식세포와 자연살해세포 증식을 촉진하고, 암세포를 인식해 제거하는 면역 작용을 증진하는 것을 확인했다.

세포 실험 결과, 홍잠 추출물은 자연살해세포(NK92) 증식을 7% 촉진했다. 또 뇌종양, 혈액암, 췌장암 세포들의 제거 능력도 높였다. 특히 뇌종양 암세포(교세포종)를 제거하는 능력은 3배 이상 높았다.

면역력이 낮아진 실험 쥐에게 홍잠을 먹인 결과, 면역에 관여하는 비장의 비(B) 림프구 기능이 촉진돼 혈액 내 면역 단백질 양이 1.5배 늘었다.

티(T) 림프구와 자연살해세포를 증식시켜 암세포를 탐지해 제거하는 능력도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잠을 먹은 정상 쥐도 면역 단백질과 암세포 제거 능력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홍잠 추출물이 대식세포의 생존 기간을 늘려주고, 염증반응을 악화시키는 산화질소(NO) 생성과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억제하는 것도 확인했다.

이를 통해 미생물과 바이러스를 탐색해 제거하는 식세포 작용과 암세포 작용을 각각 20배, 5배 이상 촉진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특허출원 했으며, 앞으로 임상 시험과 함께 홍잠 원료 표준화, 자동화 대량생산 체계 등 기반 연구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산업곤충과 변영웅 과장은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홍잠의 간 질환 예방, 인지기능 개선 등 다양한 효능을 밝혀 왔다”며 “앞으로도 산업과 연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여름을 알리는 절기 망종에는 보리의 본격적 수확이 시작된다. 사진은 보리 수확에 한창인 농촌의 모습. <사진=전북농기원>

망종이 지나면서 햇보리 수확에 한창인 농촌

농촌은 지금

망종은 24절기 중 아홉 번째 절기로, 본격적으로 여름을 알리는 의미 있는 시기다.

망종이 되면 농촌에서는 추운 겨울을 이겨낸 보리가 결실을 맺고,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된다. 농촌은 지금, 보리 수확으로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2024년 기준 전북의 보리 생산량은 약 34,000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47.9%를 차지하고 있다. 한때 보릿고개 시대에 쓴 대식 주식을 담당하며 높은 생산량을 유지할 때도 있었으나 2018년 47천ha를 기점으로 점차 생산량이 감소해 최근 6년 사이 48.9%나 감소했다. 반면, 1인당 보리쌀 소비량은 2015년 1.3kg에서 최근 3년간 1.5~1.6kg 수준으로 소폭 증가했다.

보리는 쌀, 밀, 수수, 옥수수 등과 함께 주요 곡류로 꼽히며, 영양가 또한 탁월하다.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당지수는 낮기 때문이다. 특히, β

-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콜레스테롤 저하, 혈당조절, 장 건강 개선에 효과적이다. 이 때문에 당뇨 증상이 있는 성인들은 흰쌀밥 대신 보리를 섞어 먹기도 한다.

보리는 주로 밥쌀용과 보리차용으로 품종이 나뉘는데 전북에서는 흰찰쌀보리와 늘찰보리를 밥쌀용으로, 큰알보리를 엿기름용과 보리차용으로 재배하고 있다.

보리는 월동기에 파종해 봄에 생육하기 때문에 병해충 발생이 적고, 친환경 식품으로서의 이미지가 높아 선호도 높은 작곡 중 하나다. 또한, 시원하고 청량한 맛으로 보리 맥주가 인기를 얻으면서 맥주 전용 보리도 생산되고 있다.

최근 다양한 수입산 잡곡 유입으로 보리 생산이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보리의 영양학적 가치에 주목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대표 식품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농업기술원은 기대하고 있다.

<제공=전북자치도 농업기술원>

전북도, 잔류농약 야간 신속검사 150% 확대

여름철 농산물 안전점검 강화 345종 오남용 집중 단속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농산물 농약 오남용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 도내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도내 공영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 유통현장에서 판매되는 상추, 깻잎, 열무, 근대 등 여름철에 부각할 판정 정도가 높은 채소류를 대상 총 345종의 잔류농약 성분들에 대해 정밀 분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여름철에는 총 520건의 농산물을 검사한 결과, 아욱, 근대, 깻잎, 무,

취나물 등 5건에서 터부포스, 이미시아포스, 피플루루마이드 등 살충제 성분이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바 있다.

올해는 보다 안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공영도매시장 경매 전 이뤄지는 야간 신속검사를 200건에서 300건으로 150%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검사 항목도 중점관리 농약 6종을 추가해 총 345종으로 늘렸다.

연구원은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확인될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전국 시도 및 생산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문제 농산물에 대해 신속한 압류·폐기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농산물 농약 오남용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달부터 8월 말까지 도내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사진=전북도>

전북, 지역 식품기업·13개국 바이어 ‘1:1 수출상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도내 중소식품기업 70곳 참여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식품기업과 해외바이어 간 1:1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2025 전북 수출상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자치도와 KOTRA 전북지원본부와의 공동 협업사업으로 1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진행됐다.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경기도 일산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식품 전문 전시회 ‘2025 서울푸드(SEOUL FOOD)’와 연계해 마련됐다.

서울푸드에 참가한 글로벌 바이어 중 일부를 전북으로 직접 초청, 도내 식품기업들과 심도 있는 개별 비즈니스 상담을 이어갔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미국, 독일,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등 13개국에서 총 21개 해외 유망 바이어사(28명)가 참가해 전북을 대표하는 식품 중소기업 70여 개사가 참여해 열띤 수출상담을 벌였다.

이번 매칭은 바이어 관심 품목과 국내 기업의 주력 제품을 사전에 매칭한 ‘1:1 맞춤형 상담’ 방식으로 이뤄져, 실질적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였다.

상담회 현장에서는 지역 특산물 기반 가공식품, 기능성 식품, 즉석조리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북 식품이 소개되며,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수출상담회를 포함해 올해 도내 중소기업 330여 곳을 대상으로 해외 판로개척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뷰티, 식품, 생활용품, 바이오



전북도는 도내 중소식품기업과 해외바이어 간 1:1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2025 전북 수출상담회’를 성료했다. <사진=전북도>

헬스 분야 바이어를 초청하는 ‘2025 JB-FAIR’를 개최할 예정으로,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는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

은 “도내 식품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전시회 연계, 바이어 유치, 홍보마케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새만금사업단, 농생명용지 5,288ha 영농계약

환경관리 의무사항 신설 간척지 재임대·퇴비 사용 단속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오재준)은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지력증진 차원에서 5,288ha에 대한 영농 계약을 체결했다.

군산·김제·부안 지역의 122개 농업법인이 법인당 평균 43ha 규모로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간 밀·콩·옥수수·

은 “도내 식품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전시회 연계, 바이어 유치, 홍보마케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행위제한 위반과 관련해 ‘23년 불법 재임대, ‘24년 허용되지 않는 가축 분뇨 퇴비 사용 등으로 불의를 일으킨 법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임대차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한편 형사고발 하였음을 알려 간척

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또 이번 계약 시 환경관리 의무사항을 신설해 비료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료만을 허용함으로써 시비기준을 명확히 하고, 간척지 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영농 시 농업비점오염 방지 등 환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오재준 새만금사업단장은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영농상황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불법 재임대, 미승인 퇴비 사용 등 영농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을 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임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식량안보 사수 및 간척 농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사용·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조성이 모두 완료된 단지별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되게 식량안보와 미래 농생명 산업의 중요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조달청, ‘공공조달길잡이’ 컨설팅 제공

전북지방조달청은 12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관 ‘2025년 전북기업과 함께하는 공공구매 전시상담회’에 참석해 찾아가는 공공조달길잡이 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상담회에서 전북조달청은 참여 기업들에게 벤처나라, 혁신제품, 조달우수제품 등의 조달제도를 설명하고 각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공공조달길잡이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우수한 제품을 갖고 있지만 공공조달 시장에 어떻게 진입할지 모르는 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으로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 전문



관 제도이다.

한창훈 전북지방조달청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보의 부재, 상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이 많다”며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홍콩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中 개별관광객 공략’

타시도 공동 관광홍보관 운영 전북미식·한지 체험 등 마련

전북자치도는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홍콩 국제관광박람회’에 14개 시군과 12일부터 15일까지 4일동안 공동 관광홍보관 운영 및 현지 관광객 공략에 나선다.

홍콩 국제관광박람회(ITE Hong Kong: International Travel Expo Hong Kong)는 홍콩 최대 규모의 관광 전문 박람회로서, 60개 국가와 500개 지역이 참여하고, 7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관광 플랫폼이다.

전북자치도는 135㎡ 규모로 조성된 한국관 내에 일부 공간을 활용해 전북 관광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14개 시군과 연계해 공동 마케팅을 펼친다.

특히 오는 14일 주홍콩한국문화원에서 전북 단독 소비자 대상 관광홍보 행사를 열어 전북만의 전통문화와 미식을

선보인다.

이 행사는 전북 관광설명회를 시작으로, 전주비빔밥과 애호박전을 직접 만들어보는 한식 쿠킹클래스, 고창 복분자, 남원 김부각 시식, 한지 공예(부채와 접반침 만들기)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하루 동안 총 2회차로 나눠 100여 명의 현지 소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해외 마케팅은 급증하는 중화권 자유여행 수요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공동 홍보부스에서는 전북의 대표 관광지과 축제, 미식, 전통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현장 여행 상담과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은 전북 여행지를 주제로 한 ‘피클 맞추기’와 관광엽서 쓰기, SNS 구독 이벤트 등에 참여하며 전북의 관광자원을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현지 소비자와의 교감을 통해 전북 관광의 인지도를 높이고, 현지 여행사와의 교류 기회를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북의 전통문화는 물



전북자치도는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홍콩 국제관광박람회’에 14개 시군과 15일까지 4일간 공동 관광홍보관 운영에 나선다. <사진=전북도>

론, 체험형 미식관광 콘텐츠를 집목한 전략은 문화체험을 선호하는 중화권 관광객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이번 국제관광박람회를 계기로 전북자치도는 중화권 개별관광객(FTT)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해외 마케팅 전략을 가동한다.

문화와 체험 중심의 차별화된 콘텐츠

를 바탕으로, 한류에 관심 많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다각형 홍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공동 상품개발과 정보 공유를 촉진하며, 관광을 위한 본격적인 해외 마케팅 전략을 가동한다.

/김영태 기자

고창군, 농촌중심지 활성화 공모선정

북부권 통합형 농촌중심지 5년간 3백억 투입 관계 인구유치 기대

‘체육관 건립’ 등 고창군 북부권(흥덕면·성내면)에 향후 5년간 300억원이 투입돼 혁신적인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1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촌중심지 활성화(통합형)’ 공모사업에 흥덕·성내면이 최종 선정됐다.

‘통합형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중심지의 안정된 정주 환경조성과 지

역의 잠재적인 자원 활용을 통한 ‘재생거점’을 추가로 설정해 관계·생활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하는 통합·특화형 사업이다.

고창군에서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동안 300억원(국비 210억, 도비 27억, 군비 63억)을 투입된다.

흥덕면 소재지 일원에는 △흥덕 체육관 건립 △작은 목욕탕 신축 △종합복지화관 리모델링 △흥덕 문화복지관(하모니센터) 증축 등을 통해 북부 생활권의 정주 환경 개선 및 통합 생활 서비스 공급 기능이 강화된다.

성내면 동림저수지 일원에는 △체류형 복합단지 △체험형 스마트팜 단

지 조성과 더불어 노을과 철새 군무를 테마로 △런케이션센터를 건립해 관광객을 유지하고 귀농·귀촌에 관심있는 도시민을 고창군의 관계·생활 인구로 유입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고창군 북부 생활권에 혁신적인 변화와 성장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군민의 행복 복지를 증진하고 지속적인 관계 인구 유치를 통해 미래를 여는 고창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원평공설시장 활성화 주민 설명회

시민 목소리 현장 경청 문제점·건의사항 공유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며 현장행정을 추진한다.

시는 12일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오후 추진 중인 원평공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평공설시장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상인 고령화와 폐점포 증가

등으로 인해 침체일로에 있으며, 시는 원평공설시장의 장래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오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원평공설시장이 자리한 금산면 주민 대상으로 시장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설명회가 마련됐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마을 이장, 주민자치위원, 시장 상인 등 다양한 지역 주민들과 김제시 관계 공무원, 용역사가 참석해 용역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고 또한 질의응

답 시간을 통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나아갈 큰 방향성들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 공유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주민설명회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소통의 장이다”며 “주민 의견을 최대한 듣고 반영해 적절한 원평공설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인천공항간 버스, 적극행정 사례 선정

교통 사각지대 해소 등 긍정적 효과 이끌어

고창군의 ‘인천공항행 직행버스 운행’이 행안부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로 선정되며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규제개선 신규사례로 ‘고창군-국토교통부 조정 제도 활용한 지역주민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 발굴’을 선정했다.

고창에선 지난 3월에서야 고창-인천공항간 고속버스 운행이 시작됐다. 이전에는 인천공항으로 곧장 가는 버스노선이 없어 해외를 나가려는 군민들은 무거운 짐을 끌고 인근 정읍이나 광주까지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취임직후 주민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수차례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고창-인천공항행 노선 신설을 건의해 왔다.

특히 전북도·전남도 간 의견차이와 운수사 갈등의 악조건 속에서 고창군은 ‘광역 지자체 간 협의가 어려울 때 국토교통부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찾아냈다.

담당 국장과 과장이 국토교통부 조정 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천공항 직행노선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조정 위원들을 거듭 설득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인천공항 직행노선 운행이 시작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교통 사각지대 해소 △군민 이동권 보장 △관광객 접근성 제고 △세외수입 증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KB증권, 부안갯벌 프로젝트 2천만원 기부

한평생 프로젝트에 사용 생태보전·상생협력 실천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KB증권(대표이사 김성현), 월드비전(나눔사업부 문장 나윤철)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 22층 대회의실에서 한평생(生) 부안갯벌 프로젝트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KB증권 임직원 200명이 참여해 총 2000만원의 기부금을 군과 월드비전에 전달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부안군 줄포만 일대 갯벌의 생태보전과 탄소흡수원 확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을 위한 한평생 부안갯벌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기후위기, 경제위기, 지역소멸이라는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ESG 행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기부가 갯벌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B증권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금융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ESG 선도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공무원 사칭 ‘노쇼’ 주의보

사기범죄 잇따라 대책마련

전북 고창군에서 군청직원, 군인, 소방공무원 등을 사칭한 사기범죄(노쇼)가 잇따르면서 군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12일 고창군과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달초 한 농약사에 군청 직원이라며 소개한 남성이 방재복 구입비용을 대신 내달라며 수억원을 계좌이체 시킨 뒤 사라졌다.

같은날 지역의 복분자 가공업체에도 군부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며 전화가 걸려왔다. 이 남성은 자신의 명함을 보내고 안심시키면서 선물용으로 복분자와 오디를 주문했다.

하지만 이후 부대원들이 먹을 도시락을 같이 주문해 달라며 특정업체로 수백만원을 송금시킨 후 잠적했다.

이외에도 고창에선 예능프로그램 제작팀을 사칭한 와인대리구매

피해를 비롯해 장어식당에 예약한 뒤 잠적하는 피해 등이 이어지고 있다.

군은 유사 사례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사례를 지역업소에 긴급히 안내하고, 군청 공식 누리소통망(SNS)과 블로그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주의를 환기해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112(경찰) 또는 1332(금융감독원)로 신고를 당부했다.

황민안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군청에서 진행하는 모든 공식 업무는 반드시 대표전화나 부서 직원을 통해 확인해 주길 바란다”며 “고창군청 이름으로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신분증을 받았을 경우 즉시 군청에 문의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 달라”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산단 예초작업 근로자 만족도 제고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농공단지 예초작업을 진행한다.

시는 지난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산업단지(2개)와 농공단지(7개) 내 도로 및 인도변, 소공원, 공용주차장 등 녹지공간을 대상으로 무성하게 자란 잡초 제거와 녹지공간 고사된 수목을 정비하는 예초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은 여름철을 앞두고 무성하게 자란 잡초로 인해 차량 통행 및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우거진 잡초에서 해충 발생이 우려된다는 입주기업들의 건의에 따라 산업·농공단지 9개소를 대상으로 예초작업 일제정비

를 실시하게 됐다.

시는 단지별로 보행로 주변, 소공원, 공용주차장 등 취약지역을 우선 선정해 예초기와 운반차량을 동원해 작업 및 정리작업을 실시하고, 폭염으로 고사된 녹지공간의 수목을 정비해 입주기업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농공단지 내 시설물 환경개선을 위한 정비 활동을 통해 입주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근로자가 일하고 싶고 기업에서 해충 발생이 우려된다는 입주기업들의 건의에 따라 산업·농공단지 9개소를 대상으로 예초작업 일제정비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문화예술과-문화예술단체, 청렴 앞장

청렴문화 확산 간담회

부안군 문화예술과는 12일 지역문화 예술단체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 영역에서의 청렴성 제고와 민·관의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부패·공익신고 요령,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제도적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요소를 짚어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특히 부안 청렴 5핵(불친절, 갑질관

행, 부당지시, 금품수수, 향응접대) 실천을 공유하고,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모여 조직과 사회 전반의 청렴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또 청렴문화의 확산이 공직사회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관이 협력해 신뢰받는 행정, 부정부패 없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북스타트 책놀이 1기 운영

김제시립도서관은 영·유아의 책과 첫 만남을 돕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독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모와 함께하는 북스타트 책놀이 프로그램 1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와 함께 책을 읽고 다양한 놀이 활동을 병행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지고 부모들이 집에서도 배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운영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총 4회로 진행되며 장소는 시립도서관 3층 채움터 1강의실이다.

참여 대상은 13개월부터 26개월 영·유아와 보호자 총 10가족으로, 오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김제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북스타트 책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책과 친해지고 즐거움을 경험하고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립도서관, 14일~7월 5일 ‘이야기가 있는 코딩’ 운영

부안군립도서관이 책 읽기와 코딩을 융합한 특별한 독서 프로그램인 ‘이야기가 있는 코딩’을 오는 14일부터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이야기를 바탕으로 직접 코딩을 통해 창의적 표현과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과정은 6월 14일부터 7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4차시로 운영되며 매회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부안군립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부안 지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이다.

‘쓰레기는 우주에도 있다(엄암주니어)’와 ‘다짜고짜 배구(나무말미)’를 주제 도서로 선정하고 사서와 함께 독서를 진행한 후 코딩 전문 강사와 함께 3차원 가상공간 코딩을 배우게 될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코딩으로 구현해 보는 과정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은 물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도 함께 키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서관은 앞으로도 지역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운동주의시, 유행주의 노래’ 윤형주 초청 고창포럼 열어

고창군이 12일 오후 동리국악당에서 국내 대표 싱어송라이터 윤형주 강사를 초청해 ‘운동주의시, 유행주의 노래’를 주제로 군민 포럼을 열었다.

민족시인 윤동주의 6촌동생이자 포크가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윤형주 강사가 윤동주 시인이 지키고자 했던 민족에 대한 사랑, 그 마음을 문학적 감동으로 전달하고 했던 노력을 이야기 했다.

윤동주의 시에 별이 많이 나오는 이유, 독립운동 사상범으로 체포된 후부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상황 등을 전달하며 시인이 지키고자 했던 조국과 문학에 대해 기억을 되새기며 전달했다.

또한 윤동주의 시를 작곡해 히트를 쳤던 노래가 많고 그로 인해 시가 많이 알려졌으며 시어와 시어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조화, 화음이 많다는걸 강조했다. 윤동주 시인의 민족정신을 담은 본인의 음악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진솔하게 이루어 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보훈은 과거의 기억이 아닌, 미래를 위한 책임이다”며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고, 다양한 독립 활동이 이뤄졌던 고창에서 보훈의 가치를 함께 나누며 보훈의 정신이 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 사회적 관심 유도 캠페인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2일 ‘2025년 제9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기념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15일 ‘제9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해 김제 징계장터 및 전통시장 일대에서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제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징계장터에서 시작된 캠페인은 김제시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를 돌면서 주변상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의 심각성 제고 및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시장의 한 상인은 “평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알게 됐다”며 “우리 모두 언젠가는 나이가 들게 되는데, 지금의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게 미래의 내 노후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노인학대는 우리 모두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법국민적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준비하게 됐다”며 “김제시의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향상은 물론,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체계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의회를 통해 △인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등 6개 부문 총
 79개 지표 선정을 완료했다.

또한 '순창군 청년발전 기본조례'에
 따라, 2024년 12월 말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세부터 49세
 까지 넓은 범위의 청년을 대상으로 통
 계자료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통계는 지역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을 진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
 한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기
 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청
 년 당사자와의 소통과 의견 수렴에도
 유용한 기반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스마트팜 교육장은 단순 교육장을 넘어서 청년농의 초기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전형 훈련 공간으로 가능하며, 농업기술센터, 남원글로벌캠퍼스와 연계한 멘토링·컨설팅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다.
특히, 4차례의 걸친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완주군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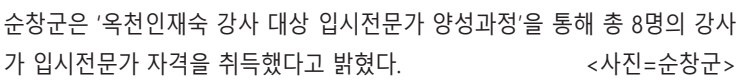
심 위원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이라는 주제는 모두가 공감하고 느끼는 부분”이라며, 실천하는 특위활동으로 군민들이 공감하는 정책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향후 특별 위원회 활동방향을 제시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에게 제공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철거를 넘어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실질적인 사업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남원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빈집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 △공공 공간 확보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비스를 구축해 나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순창=박지현 기자

오후에는 우석대학교 김대호 교수가 '의정활동의 새로운 도구, 생생AI를 만나다'를 주제로 챗GPT의 생생 활용법을 소개했다. 교육은 생생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정자료성, 정책 분석, 의사결정 지원 등 다양한 실무에 적용 가능한 역량 강화 중점을 뒀다.

무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전북형
니어 안전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여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동 중·후 참여자 건강 상태를 확인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
고 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을 통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홀몸노인,
성질환자 등 폭력 취약계층의 안
확인과 응급별장 장비 등을 점검
예방적 돌봄 활동도 함께 전개
있다. /원주=김명근

는 구간을 중심으로 정비가 이루어지며, 도로변 준설작업 등 1차 조치 완료했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오는 6월 내 읍면동 준설 구역 지역 및 상습 침수 구간에 대한 초·점검 및 2차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서 여름철 우기 도래 전 모든 배수를 마무리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다할 예정이다.



익산 영등2동 부녀회, '사랑 나눔 바자회' 개최

익산시 영등2동은 부녀회(회장 홍점순)가 행정복지센터 쉼터에서 '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기관·단체 회원들과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부녀회원들은 쭉쭉편, 쭉가래, 쭉설기 등 올봄 손수 채취한 쭉으로 만든 떡을 비롯해 국산 들기름, 참기름, 감자 등 우수한 품질의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북전주농협, 관내 경로당 에어컨청소 지원 사업 실시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과 농협파트너스(대표이사 이범석)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4일 까지 4일간 관내 경로당 및 마을회관 에어컨청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북전주농협 관내 조합원 등 고령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마을 공동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에어컨청소 지원 사업은 사업비 약 1,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총 60여 곳의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지원하며, 특히 농협파트너스와의 협업을 통해 농협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김제시 용지면 사회단체, 화재 피해 가구에 680만원 전달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사회단체가 화재로 피해를 입은 한부모가정을 돕기 위한 성금 68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정은 지난 1일 용지면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고 현재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장단협의회, 청년회, 어울림봉사회, 남녀의용소방대 등 4개의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총 68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문승우 도의장, 국제라이온스협회 감사장 수상

지역봉사 실천공로 "공감행정 적극 펼쳐 나갈 것"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도의장이 12일 국제라이온스협회로부터 지역민들을 위한 봉사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이날 오전 9시 도의회 의정실에서 열린 수여식에서는 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연합회 정성길 이사장이 참석해 파브리시오 올리베이라 국제회장을 대신하여 감사장을 수

여했다.

파브리시오 올리베이라 국제회장은 "문승우 의장은 전북 의정을 총괄하는 의장으로서 활발한 대민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며 감사장 수여 배경을 밝혔다.

문승우 도의장은 "감사장에 수상에 의정활동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군산 수송동 천사누리지사협, '희망2025나눔캠페인' 수상

이웃돕기 부문 공로 인정

군산시 수송동행정복지센터는 관내 천사누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희망2025 나눔캠페인 유공자 시상식'에서 이웃돕기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2일 밝혔다.

'희망2025 나눔캠페인 유공자 시상식'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천사누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

원 △꾸준한 민·관 협력 활동 지속을 통해 나눔 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한종현 민간위원장은 "우리가 받은 상은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곽은하 수송동장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행정과 민간이 협력해 촘촘한 복지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초산동 주민센터 견학한 꼬마 시민들

정읍남초등학교교병설유치원 유치원생들이 초산동 주민센터를 찾아 공공기관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유치원생 15명은 지난 11일 주민센터를 찾아 초산동의 역사와 특성, 주민센터가 하는 일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주민센터가 주민을 위한 행정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는 설명을 듣고 큰 관심을 보였다.

직원들은 복지서비스, 문화 프로

그램, 민원 안내 등 주민센터의 다양한 역할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소개했다. 이에 유치원생들은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박순배 동장은 "어린이들이 이번 견학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중함을 깨닫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누구나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열린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완주군 전물군경유족회, 보훈가족에 성금 기탁

유옥희 대한민국 전물군경유족회 완주군지회장이 지난 11일 완주군을 찾아 저소득 보훈가족을 위해 300만 원을 전달했다.

유옥희 회장은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예우하고, 저소득 보훈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성금을 전달했다.

유옥희 회장은 "보훈의 달을 맞아 주변에 어려운 보훈가족이 많

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그분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 기부를 결심했다"며 "이번 기부로 많은 분들이 보훈가족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도 보훈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카페 '인디비주얼', 장수군에 500만원 상당 아동의류 기탁

임실군 운암면에서 카페 '인디비주얼'을 운영하는 박준열 대표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500만 원 상당의 아동용 상의 500벌을 장수군에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카페 '인디비주얼'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와 봉사 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기탁은 평소 지역과 상생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대표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귀감이 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춘향장학재단, 지리산한지 등 지역 인재육성 기탁금 잇따라

춘향장학재단은 12일, 지역 인재양성 및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지리산한지(대표 김동훈)로부터 1천만원, 남원시 골프협회(회장 김영규)로부터 2백만원 총 1,200만원의 기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리산한지(대표 김동훈)는 지난 12일 "지역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춘향장학재단에 1,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기탁금은 장학생 선발 및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정읍 산내면 부녀회, 독거노인에 밀반찬 전달

정읍시 산내면새마을부녀회(회장 전은숙)가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을 위해 정성 가득한 밀반찬을 손수 만들어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산내면 부녀회는 지난 11일 홀로 지내는 어르신 30세대를 대상으로 김치와 돼지불고기 등 밀반찬을 준비해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어르신들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하고, 무더운 여름철에 식사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정읍=김정인 기자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손을 깨끗하게 씻어요	음식은 꼭 익히드세요	물도 급격적이면 끓여먹어요	세척 및 소독하기	구분해서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주세요.	2 육류 중심온도 75도, 어패류는 85도로 1도 이상 익히 드세요.	3 물은 100도 이상으로 끓여서 먹도록 해요.	4 식재료와 조리도구는 깨끗이 세척하고 햇빛에 꼭 소독해주세요.	5 날 음식과 조리 음식을 구분해서 칼과 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6 냉장식품은 5도 이하, 냉동식품은 -18도 이하에서 보관합니다.

〈一事一言〉



K-이니셔티브의 성공을 바라는 단상(1)

이문기

세종대 국제학부 교수

정책선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대통령 선거는 아쉬움이 컸다. 활발한 정책토론이 없어서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지만, 필자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정책공약은 이재명 후보의 'K-이니셔티브' 비전이었다. 이 비전은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자산을 한국과 세계 관계 전반으로 확장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K-이니셔티브는 최근 들어 우리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된 선진국 정체성을 대내외 정책에 반영하려는 구상이다. 서구 선진국을 추종하는 모방형 국가에서 자기주도성에 기초한 선도형 국가로의 전환을 추구하고자 한다. 십년 전만 해도 이런 정책을 제기하면 시쳇말로 '국뽕'이라는 비판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수긍하고 국민 모두가 기대하는 국가 비전이 되었다.

그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한류의 위대한 성취에서 얻은 영감과 자신감에서 기인한다. 그래서 K-이니셔티브 구상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구상이 나올 수 있었던 영감의 원천인 한류의 성공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로부터 한국과 세계의 관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K-컬처의 세계적 유행은 한국

역사에서도 놀라운 일이지만, 세계사적으로도 특별한 의의가 있다. 19세기 이래 세계사는 서구적 근대성이 전 세계를 압도했다. 따라서 근대 이후 문화의 전파 양상은 기본적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되어 점차 세계인이 수용하는 방향으로의 흐름이 하나의 패턴이었다. 그런데 한류의 확산은 이를 거슬러 문화 흐름의 방향을 역전시킨 것이다. 20세기 초 식민지를 경험한 수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문화수입국에 머물러 있지만, 한국은 유일하게 문화수출국으로 변모했다. 이는 한국이 이론 경제적, 정치적 성취보다 더 값지고 특별한 것이다.

한국이 어떻게 경제발전을 이루었는지, 또 어떻게 정치 민주화를 실현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문화강국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한국의 문화적 성취가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이유는 경제나 정치발전 영역은 서구 선진국의 경험과 이론으로 설명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데 비해, 문화적 성취는 이를 적용하여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필자가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하면서 한류의 성공 원인에 대해 추론한 내용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한류의 성공 원인에 대한 해석

은 다양한 측면에서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콘텐츠의 독특한 매력과 세계적 수용성 측면에서 볼 때 두 가지 이론의 설명력이 강하다. 하나는 문화혼종성(cultural hybridity)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초국가적 근접성(transnational proximity) 이론이다. 혼종문화의 대표적 사례는 K-Pop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세기에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컸던 미국의 대중음악은 흑인음악이 백인문화와 한차례 혼종성을 일으킨 후 창출된 것인데, 이것이 한국에 상륙한 이후 한국적 정서와 다시 한번 뒤섞이면서 K-Pop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혼종문화를 탄생시켰다는 것이다.(크리스털 앤더슨 저, <케이팝은 흑인음악이다> 놀민, 2022)

또 다른 이론인 초국가적 근접성 이론에 입각한 설명은 한국 대외 문화 콘텐츠가 개별 지역과 민족의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 세계인 모두가 공감하고 수용할 만한 주제 의식을 잘 반영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 그리고 과잉경쟁 사회에서 민중들의 고단한 삶과 피로감을 잘 드러낸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류의 성공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이론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보완적이다. 콘텐츠 측면에서 볼 때, 한류의 성공 요인은 '문화혼종성'을 통해 기존의 서구

주류문화에서 느끼지 못한 새로운 감성을 담아내면서, 또한 글로벌 수용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보편적 문제의식을 반영한 '초국가적 근접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 두 이론 중 초국가적 근접성 이론의 경우 한국 민족의 특수성보다는 세계적 보편성에 더 주목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류의 성공과 관련하여 한국민족 고유의 특성과 정체성을 더 잘 반영하는 개념은 문화혼종성 이론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인 및 한국문화의 이런 특성은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민족성으로부터 연유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한반도 국가는 예나 지금이나 중간 지대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근대 이전 시기에는 주로 북방 유목민족과 중화문명 사이에서, 그리고 근대 이후에는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 사이의 중간지대에 위치했다. 이런 중간지대 성격으로 인해 한반도 국가는 역사적으로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가지 정체성을 보유하게 되었다. <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민간중심 창업생태계, 전북의 미래를 여는 열쇠다

전북자치도가 '창업하기 좋은 전북'을 향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 주도의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는 등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다. 이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창업생태계 전반을 개편하고 혁신의 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전북도가 창업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방향은 '민간 주도'다. 특히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정부 R&D 자금과 연계해 지원하는 팀스(TIPS) 프로그램 도입하면서 민간 투자자의 선제적 판단과 실행력을 기반으로 창업기업을 키우겠다는 전략은 매우 타당하다. 이미 6개 팀스 운영사가 선정되었고 민간투자 3억원 이상을 유치한 유망 기업 60곳을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 이는 창업 지원의 공공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의 역량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공간 인프라 확충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전주한옥마을의 '키움공간' 개소에 이어, 익산역 인근에도 식품·바이오 특화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창업은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험하고 실패하며 성장할 수 있는 물리적·심리적 기반이 필요하다. 전북의 이러한 접근은 창업가들의 체류 유인과 생태계 집적 효과를 동시에 노린 전략으로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전북도는 창업기업의 성장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예비 창업자에서 도약기 기업까지 381개사를 대상으로 191억원을

투입하는가 하면, 시군 청년혁신가 발굴, 창업 패키지 운영, 이차보전 금융지원 등도 병행하고 있다.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9개 펀드를 통해 2천69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전북을 운용 거점으로 한 투자사 확보와 공동 기술사업화 협약까지 추진하고 있다. 해외 스타트업 유치와 외국인 창업비자 지원을 포함한 글로벌 전략도 차별화된 지점이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글로벌 창업이민센터를 유치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이례적이다. 전북이 글로벌 창업 도시로 도약하려는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창업생태계는 단기간의 자금 지원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실패를 허용하고 재도전을 장려하는 문화, 기술 기반 창업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 대학·연구기관·민간기업 간 긴밀한 네트워크, 그리고 지역 내 소비와 판로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북이 이제 시작한 이 복합적인 퍼즐 맞추기에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이 보여주는 방향성과 의지는 분명하다. 과거 제조 기반 산업의 쇠퇴로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이 땅에, 혁신 창업이라는 씨앗을 심고 미래 산업의 중심축으로 다시 일어서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도.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시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정치·행정적 뒷받침을 지속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창업 친화적인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창업하기 좋은 전북, 그 비전이 허상이 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재열전



부설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기록유산, 문서류, 민간문서
- 지정일- 1992년 6월 20일
- 시대- 미상
- 소재지- 부안군 변산면

내변산로 236-180

▲오늘의시

낙타 / 신경림

낙타를 타고 가리라, 저승길은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본 일이 없는 낙타를 타고,

세상사 물으면 짐짓,
아무 것도 못 본 체
손저어 대답하면서,
슬픔도 아픔도

시인 약력 : 1936년 충북 충주 출생. 동국대 영
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55년 '낯달', '갈대',
'석상' 등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이후

까맣게 있었다는 듯,
누군가 있어
다시 세상에 나가란다면
낙타가 되어
가겠다 대답하리라.

별과 달과 해와
모래만 보고 살다가,

'원격지', '산읍기행', '시제', '농무' 등의 시를 발
표했고 시학 해설서인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
서'를 출간하며 작고한 시인들과 생존 시인들

돌아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
등에 업고 오겠노라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았는지도 모르는
가장 가엾은 사람 하나 골라
길동무 되어서.

을 만나기도 했다. 1973년 만해문학상, 1981
년 한국문학작가상을 수상했다.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발행 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연수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9-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백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정읍지국 010-2800-2934
송천지시-010-5242-369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도민의 제보가 지역사회 만드는 힘이 됩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기사제보-063)282-9600~3

“정읍의 맛과 품과 경을 담았다” 시민이 선택한 정읍다움 ‘정읍보물 369’



“정읍에는 참 좋은 것이 많은데, 하나도 빼놓을 수 없게 아쉬웠습니다. 이번 ‘정읍보물 369’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우리 지역의 진짜 매력을 발굴하고 이를 브랜드로 만들어 정읍의 가치를 한층 높이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읍이 더욱 자랑스러워질 것 같아요.”

시민 김모 씨, 시민 제안 공모 참여자

정읍시가 지역의 숨겨진 매력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 ‘정읍보물 369’ 브랜드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도약을 예고했다.

최근 정읍관광발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발표된 정읍보물은 단순한 상징물 지정을 넘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결합된 결과물로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정읍의 맛(3미·6품)’, ‘정읍의 특산물(6품·9경)’, ‘정읍의 명소(9경·9경)’로 구성된 ‘정읍보물 369’는 정읍다움을 가장 잘 표현하는 정수를 담아내며, 향후 정읍을 대표하는 핵심 콘텐츠로 활용될 전망이다.

뜨거운 시민 참여, ‘정읍의 보물’을 찾아 가는 여정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된 시민 제안 공모에는 무려 1500여 건에 달하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시민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정읍의 맛과 멋, 그리고 자랑거리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정읍보물찾기’에 열정적으로 동참했다.

시는 접수된 제안들을 바탕으로 1차 심사를 거쳐 ‘10미, 18품, 21경’의 후보군을 압축했다. 이후,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온·오프라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는 총 6400여명이 참여해 정읍보물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뜨거운 경쟁과 관심 속에서 2차 후보군으로 ‘6미, 10품, 15

시민 1500여 건 제안
6400여 명 선호도 조사
관광·경제 활성화 기대

경’이 추려졌고, 마지막으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의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읍을 대표할 ‘3미·6품·9경’이 그 영예로운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정읍의 맛과 멋, 그리고 이야기를 품은 ‘3미·6품·9경’

그렇다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선정한 ‘정읍보물 369’는 과연 무엇일까? 면면을 살펴보면 정읍의 역사와 문화, 자연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까지 아우르는 다채로운 매력들이 조화롭게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정읍을 대표하는 3미(味)에는 △정읍 생화차 (한약재의 깊은 향과 건강까지 생각하는 전통차) △정읍 한우 (정읍 자연에서 자란 우수한 품질과 풍부한 육즙) △내장산 산채비빔밥 (내장산의 맑은 정기를 품은 신선한 산채의 향연)이 선정돼 정읍의 미식 문화를 이끌게 된다.

다음으로 정읍의 풍요로운 땅과 정성이 빛어낸 6품(品)은 △정읍 구리 (세계적인 슈퍼푸드 건강 가치 인정) △정읍 씨 없는 수박 (높은 당도와 편리함으로 여름철 인기) △정읍지황 (우수한 효능의 전통 한약재이자 특화 작물) △정읍 막걸리 (지역 쌀로 빚은 깊고 구수한 서민의 술) △정읍주(맑고 깨끗한 맛을 자랑하는 전통주) △정읍 자생차 (정읍의 자연을 담은 은은한 향의 차)가 이름을 올렸다. 이 특산품들은 정읍의 청정 자연과 농민들의 땀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정읍의 농업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정읍의 아름다운 자연과 유구한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9경(景)으로는 △내장산 국립공원(사계절 빼어난 풍광, 특히 가을 단풍의 절정) △구절초지방정원 (가을철 소나무 숲과 어우러진 구절초의 향연) △정읍사와 달빛사랑

숲 (백제가요 정읍사의 배경지, 아름다운 야경 명소)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한국 근대사의 전환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기리는 역사 교육의 장) △무성서원(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시대 성리학의 요람) △용산호(내장산 자락에 위치하여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이자 다양한 여가 활동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공간) △피향정 (호남 제일의 정자로 불리며 연꽃과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 △월영습지와 솔티숲 (자연 그대로의 생태를 간직한 힐링 및 생태체험 명소) △김명관고택 (조선시대 양반 가옥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문화재)이 선정돼 정읍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서 그 매력을 뽐낼 예정이다

‘정읍보물 369’, 정읍의 미래를 디자인 하다

시는 이번에 확정된 ‘정읍보물 369’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읍의 매력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읍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정읍보물 369’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 강화, 관련 축제 및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브랜드 선정 과정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는 향후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긍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민들이 직접 선택한 ‘정읍보물 369’에 대한 자부심은 자연스럽게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만들고, 이는 곧 정읍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시는 ‘정읍보물 369’를 통해 ‘정읍다움’을 재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시민들의 열원과 참여로 탄생한 ‘정읍보물 369’가 정읍의 눈부신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읍=김정인 기자

제13회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자연사랑 자연보호 그림그리기 대회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과 창의력향상 도모를 위해
“전북타임스신문”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 합니다.

- ◆ 참가자격-전북자치도에 재학중인 초등학교
- ◆ 주 제- 자연사랑 및 자연보호에 관련된 모든 내용
- ◆ 공모부분-그림 (만화 포함)
- ◆ 작품크기- 8절지크기 (B4 용지)

- ▶ 공모기간- 2025년 5월27일 (화)~6월20일(금)
- ▶ 접수방법- 우편 및 방문 (학교별 단체 및 개별 접수)
- ▶ 접수처-우)5490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 ▶ 입상자발표- 2025년 7월11일 (금)
- ▶ 입상자 시상- 2025년 9월13일 (금)

♡시상내역♡

▶ 대상-3명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전북특별자치도의장상

▶ 최우수상4명 전주시장상(2명) 전주시의회장상(2명)

▶ 우수상 20명 아시아문화교류 재단전북지회장상

▶ 장려상 50명 전북타임스 대표이사상

▶ 특별상 3명 국회의원상